

여야 '쌍끌이 국조'... 7월 정국 벌써부터 '후끈'

'문재인 배수진'

국정원 사건·진주의료원 문제 날선 공방전 예고

치열한 논리대결 대비 양당 저격수 총출동 태세

두 개의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공방으로 7월 정국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 등을 다룰 공공의 국정조사가 그것이다.

◇유례없는 쌍끌이 국조 =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 국정조사를 위

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 오는 13일까지 32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장 이달 초에는 기관보고와 현장검증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국조에서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과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새누리당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증인 출석 거부사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대응도 주목된다.

최대 뇌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일이 진행된다면 이 국정조사도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거쳐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국조 시작도 전에 양당이 상대방 인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국조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특히 이 국조에 대화록 사전유출 논란을 포함할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은 국조 공개 여부와 함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어찌 됐든 이처럼 국회에서 두 개의 국정조사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현행 헌법과 국정조사 제도의 틀이 마련된 후인 제13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총 22건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으나 두 건이 동시에 열린 적은 없었다.

◇여야 저격수 총출동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유에는 여야 '저격수'들이 총출동해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특위위원은 권성동·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유재욱·김태홍·김진태·이장우

의원 등 9명으로, 권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상당수를 법사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한 것은 논리대결에서 이기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수사 현안인데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위법 논란에 휩싸인 점이 감안됐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경력 등이 고려됐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조선인 김진태 의원도 공안 검사 출신으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에서 '공격수'를 자임해왔다.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은 이름을 올렸다.

"원본열람해 'NLL포기' 발언 사실땜 정계 은퇴"

민주당 의원 74명 임시국회·청문회 소집 요구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30일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을 열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확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은 지난 28일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방공개와 왜곡조작 등을 따져 묻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공동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국정원의 불법공작을 통한 국기문란, 헌정유린사태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 야 한다"면서 "NLL 청문회"를 열어 대화록의 불법적 공개, 왜곡조작된 대화록을 통한 선거개입 정치공작 등 NLL 관련 일체의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민중과 함께! 진전 2014'라는 이름으로 정책당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마지막 일정으로 30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시민 정치문화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국정원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정희 대표 "수구세력 정권차지하기 위해 국정원 동원"

강운태 시장 "진보당원들이 광주정신 확산해달라" 축사

통합진보, 광주 정책 당대회...새 희망 진보정치 결의

통합진보당은 지난 29~30일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당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과 함께! 진전 2014'라는 이름으로 정책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희망의 진보정치를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정치노선으로 제시하고,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2017년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다는 정치 전략을 제시했다.

이정희 대표는 개회사에서 "수구 집권세력이 급기야 국정원까지 동원해 색깔론과 종북공세로 정권을 차지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에 국민의 심판을 내리고 분단체제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정신이기"에 특정 정치세력의 지역 기반으로

남아서는 안된다"며 "광주는 모든 진보민주세력의 정신적 뿌리이자, 진보의 미래인 만큼 진보당이 광주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이례적으로 민주당 소속의 강운태 광주시장도 참석,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강 시장은 축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가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 "진보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줘 통과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빛고을 광주는 권력이나 물질보다는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늘 부림치고 방향성을 붙잡고 노력해온 가치 중심의 사회"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인 5·18을 아직도 부정하고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적지 않은 만큼 통합진보당원들이 광주정신을 널리 확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조직발전전략, 지방선거전략, 노동운동 발전전략, 진보적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당원 토론회가 열렸으며, 30일에는 광주역 앞에서 광주진보연대가 주최하는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광주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원 등 9명으로, 권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상당수를 법사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와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한 것은 논리대결에서 이기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수사 현안인데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위법 논란에 휩싸인 점이 감안됐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경력 등이 고려됐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조선인 김진태 의원도 공안 검사 출신으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에서 '공격수'를 자임해왔다.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신기남 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법사위의 박영선·박법계·신경민·전해철, 정보위의 정청래·김 현, 안전행정부의 진선미 의원 등 8명이 내정됐으며, 간사는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부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공격수' 역할을 맡으면서 전투력을 겸비한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사건 조사의 '지휘부'로 역할했고, 신경민 의원은 당 '국정원 선거개입특위' 위원장으로서 사건 대응을 이끌었다. 특위 위원 대부분이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점도 이채롭다. 진선미 의원은 그간 국정원과 관련해 여러 의혹 제기를 해 '국정원 저격수'로 잘 알려져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상구 의원을 배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



민주당은 28일 민주당 묶인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을 내정하고, 위원으로 설 훈 안민석 백재현 심재권 김경철 윤후덕 홍희표 의원 등을 보임했다. 국회 동북아역사외교대책특위의 위원으로는 강창일 유기홍 유성엽 박용근 이상직 이원욱 임수경 김윤덕 의원 등을 보임했다. 간사는 유성엽 의원이 맡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 53% "盧, NLL포기 발언 아니다"

전국 성인 절반 이상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한 발언이 'NLL 포기'의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608명을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 53%가 'NLL 포기는 아니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로 본다는 의견은 24%였다. 나머지는 '모른다'고 답했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NLL 포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30~39세(76%)였고 이어 19~29세(66%), 40~49세(53%), 50~59세(48%)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23%가 'NLL 포기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45%가 '잘못한 일', 35%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리서치뷰'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날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2000명 중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40.3%는 '적절했다', 54.8%는 '부적절했다'고 각각 답했다.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1671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즉,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려 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55.4%가 새누리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한다'는 의견은 42.7%에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m²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평×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파격적인 임대료!

지하2층 ~지하1층	수영장(사우나, 헬스) 2294평×80만원 = 5억1335만원	지상2층	PC방 203평×200만원= 4억60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평×90만원 =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평×200만원 3억32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평×500만원 = 42억25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평×150만원 12억8100만원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평×500만원 = 1억1천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평×500만원 = 1억1500만원	지상2층 ~3층	골프장 906평×150만원 13억5900만원
지상1층	약국 69평×1000만원 = 6억9천만원	지상2층	일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평×500만원 = 2억2천만원	지상3층 ~4층	영화관 (입점확정)
지상1층	롯데리아,엔젤리너스 540평×300만원 = 16억2천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